



세풍산단 예정부지

광양 세풍산단 난제 해결

사업비 금융지원 수정안 통과...개발 탄력

광양 세풍산단이 개발사업비 지원 계획을 변경해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세풍산단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조달하기로 한 개발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난항이 거듭됐으나 최근 금융지원 전체조건 수정안이 조합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공에 참여할 건설사의 결단만 남겨둔 상태다.

광양경제청은 지난달 말 제6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시공사(38.8%)와 금융사(37.5%), 광양경제청(23.7%)이 금융지원 전체조건인 조성토지의 책임분양으로 산단 개발사업비(PF자금)를 확보하겠다는 지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세풍산단은 그동안 광양시(30%)가 책임분양 불가 입장표명 등을 주장하는 바람에 사실상 중단상태였으나 시공사(포스코건설 예정)와 금융사(미래에셋 확정), 광양경제청이 광양시 지분 30%에 대한 책임분양률을 각각 8.8%(포스코)와 12.5%(미래에셋), 8.7(경제청)%로 나눠 책임분양을하기로 합의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경제청은 미래에셋(증권사)과 협약을 통해 책임분양(금융사 25%, 광양시 30%, 시공사 30%, 광양경제청 15%)의 조건으로 광양시에 신용보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확실한 입주기업 유치 후 개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세풍산단 개발을 위해 광양경제청이 요구한 책임분양 신용보증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참여를 꺼려왔다.

이에 우윤근 국회의원이 세풍산단 개발이 지지부진해 결림돌이 되는 경제자유구역법 예외규정 개정 발의를 하며 세풍산단 개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서 힘을 받고 있다.

광양경제청 정인화 본부장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최종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세풍산단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높다"면서 "책임 분담을 조정 등으로 포스코건설의 이사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양=박현진기자 pyj4079@

진도 청룡·점도마을서 추억잡기

郡, 8월 개매기 체험 4회

진도군 청용마을과 의신면 점도 어촌체험마을에서 개매기 행사가 8월 한 달 동안 4차례 열린다.

개매기는 조식간의 차가 큰 바닷가의 갯벌 위에 그물을 쳐 놓은 뒤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때를 쓸 때 갈라도록 고기를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를 청용 어촌체험마을에서는 6일 오후 4시

30분, 의신면 점도 어촌체험마을에서 8일 오후 1시 각각 개매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청용 체험마을에서는 또 13일 오전 9시 30분, 18일 오후 3시에 체험 행사를 연다.

관광객이 승어, 농어, 돔 등을 맨 손으로 직접 잡은 고기를 그 자리에 서 회로 맛볼 수 있는 재미도 선사할 계획이다.

입장료는 어른 8000원, 학생 4000원이다. /진도=박현진기자 hypark@



돌산대교

관광객 부르는 '여수의 밤'

해넘이·시티투어·빅오쇼 등 필수코스 자리매김

8월 첫주 21만 방문...절반 이상이 야간 관광객

여수시가 멋진 야경과 바다를 자상으로 야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매주 주말이나 휴일에는 1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야간 관광객이라는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8월 첫 주말에는 21만1000명이 여수를 찾았으며 이 가운데 야간 관광객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를 찾는 야간 관광객 비중이 급증한 원인은 한여름 더위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아름다운 야경과 밤바다를 체험하는 야경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오동도 음악분수, 돌산대교, 해양공원 등의 야간조명시설과 이순신광장 야경을 연출하는 야간경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야경 시티투어 등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이색 관광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 밤 7시30분 오동도에서 출발해 돌산대교까지 운행하는 거북선 유람선 야경투어의 경우 300명의 승선 정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불러 170명 정원의 유람선

을 추가로 투입했다. 거북선 유람선은 오동도 음악분수대 앞에서 출발해 박람회장 내 빅오~거북선대교~이순신광장~장군도~돌산대교를 1시간 20분 코스로 왕복 운항하고 있다.

여수산단 전망과 이순신대교를 볼 수 있는 야경 시티투어와 순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시범 운행하는 여자만 해넘이 시티투어 코스는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패밀리형 관광상품인 해양레일바이크도 밤 8시30분까지 연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원한 여름 밤바다를 벗 삼아 달리는 매력에 많은 가족단위 관광

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세계박람회장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빅오쇼도 하루 평균 2000여명 이상이 관람하면서 여수관광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했다.

박람회장과 주변 바다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다워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해 조망효과를 배가하고 실내·외 풀장 설치와 캐리어 페스티벌, 카약 체험 프로그램 등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재개장 이후 벌써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세계박람회를 통해 확충된 고급 숙박시설이 체류형 관광을 이끈 것도 야경을 감상하는 숙박 관광객 증가의 원인이다"며 "올해 목표한 관광객 100만명 돌파도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항 야경



목포시 동명동 수산시장 앞에서 삼학도 물양장 190m 해상 위에 설치한 해상 시장 '파시'가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북적북적 '목포 해양문화축제'

바다위 시장 '파시'·수산물 경매장 등 인기

지난 2일 시작한 '2013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6일까지 열릴 이 축제는 1897년 개항한 목포 개항 원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항구도시 목포의 멋과 맛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다위 시장, '파시'.

과거 3대항 6대 도시 명성과 해상문화를 선도했던 항구도시 옛 목포의 선장 모습을 함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명동 종합 수산시장 앞에서 삼학도 물양장 190m 해상 위에 옛 극장, 선술집, 다방, 파출소, 이발소 등과 수산물 경매장에는 인파로 북적거렸다.

물고기 등으로 장식한 '어게인(A-gain) 1897 물고기들 페스티벌'도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번 축제는 오는 6일 오후 7시 삼학도 난장 페스티벌, 목포항 바다콘서트, 폐막 불꽃 쇼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나무은행' 500억 예산 절감

전남도, 뽕허거나 베일 나무 496곳 재활용

전남도는 도내 일선 시군에서 나무은행을 통한 재활용 등으로 5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거나 뽑힐 처지에 있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를 재활용, 녹색공간 조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다.

전남도는 나무은행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나무은행 수목 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누구나 쉽게 기증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홈페이지도 구축했다.

지금까지 일선 시군에서 수집한 나무는 15만7000그루에 달했다. 이 가운데 8만5000그루는 가로수,

도시숲, 휴양림 등 모두 496곳에 재활용돼 53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과 여수 봉황산 휴양림 경관숲, 나주 종합스포츠타워 나뭇숲 등에 사용됐다.

나무은행제는 감사원 우수사례 선정 등 지난 2011년에는 정부 시책으로 반영돼 모두 5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나무은행 사업에 동참하는 개인과 단체 기증도 이어져 상반기에 목표 1.7배 초과한 1만7000여 그루가 수집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무은행제는 버려질 수목자원의 재활용으로 녹지공간 확충은 물론 예산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돔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돔 요리 토종 참돔탕 / 울 청둥오리 / 울 삼계탕

한방 요리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돔탕 (9인분 식사소모) 40,000원

춘담백숙 38,000원

울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울담 062)515-5757(울칠울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